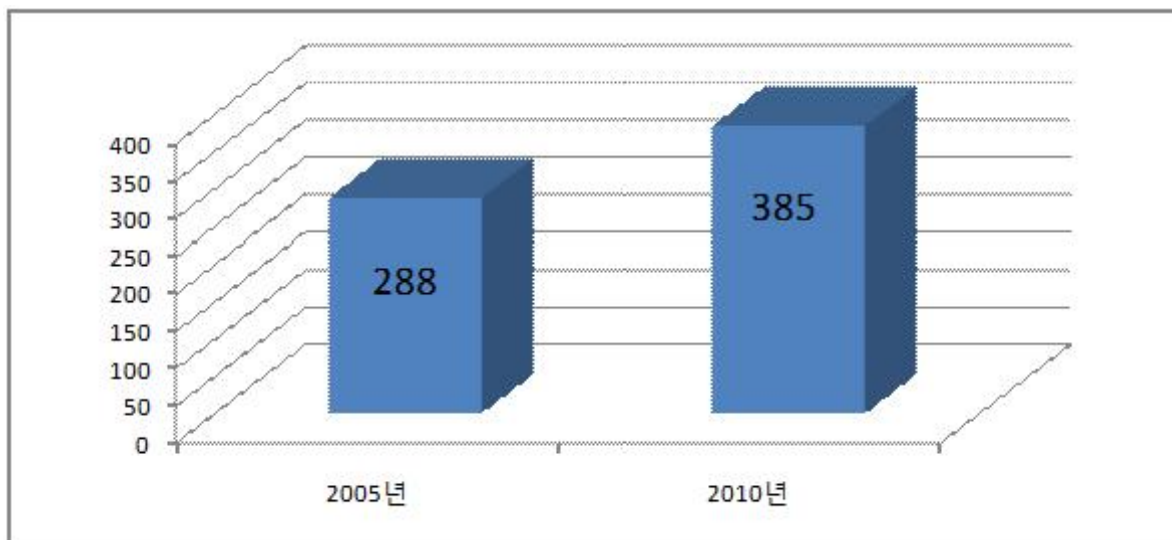


일본기업에 출자한 한국기업 실태조사

한국경제는 리먼 쇼크 이후, 금융위기에서 조기 회복하고 자동차, 전기, I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눈에 띈다. 한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본기업에 대한 출자는 5년 전에 비해 30%증가한 385개사를 기록

- 일본에 출자한 회사 추이는 5년 전에 비해 약30% 증가
- 한국기업이 출자한 일본기업은 385개사로(2010.10월 기준) 05년 조사 때에 비해 33.7% 증가

〈그림 1〉 한국기업에 의한 출자기업 수



자료: 帝国データバンク 「韓国企業による日本企業実態調査」

- 출자한 기업의 3사중 2사는 일본진출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였으나, 지방에 있는 골프장을 한국기업이 인수하는 사례도 눈에 띈

□ 업종별 출자는 골프장이 5년 전에 비해 50%증가

-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이 165사(구성비42.9%)로 가장 많았음
-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이 투자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간을 비즈니스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무역회사가 전체 약 40%를 차지했음
- * 서비스업(117사, 구성비30.4%), 소프트웨어(26사, 5년전비 ▲3.7%), 온라인게임(24사, 5년전비 +26.3%)
- 한국의 인터넷기업 NHN Corporations은 일본 법인을 통해 일본의 대표 인터넷기업인 라이브도어(Livedoor)의 주식을 취득(2010.5월)

〈업종별 구성비〉

	2005년		2010년		증감률(%)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건설업	3	1.0	3	0.8	0.0
제조업	23	8.0	43	11.2	87.0
도매업	146	50.7	165	42.9	13.0
소매업	5	1.7	15	3.9	200.0
운수통신업	23	8.0	28	7.3	21.7
서비스업	83	28.8	117	30.4	41.0
부동산업	2	0.7	5	1.3	150.0
기타	3	1.0	9	2.3	200.0
합계	288	100.0	385	100.0	33.7

□ 자본금별로는 「1억엔 이상」 이 5년 전에 비해 1.5배

- 자본금별로는 「1000만엔이상 1억엔미만」 이 222사(구성비57.7%)로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
 - 자본금 1억엔 이상은 146사로 5년 전에 비해 1.5배로 확대되었음
 - * 리딩증권은 08년 자본제휴를 통해 한국리딩증권이 본사가 되어 사업을 전개중
 - * 1억엔 이상~10억엔 미만:114사(29.6%), 10억엔 이상~100억엔 미만:28사(7.3%)

<참고자료>

帝国データバンク(2010.11.9)